

#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 구축 자료 분석

강 종 원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 1. 머리말

21세기는 세계화·지식정보화·문화의 세기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와 지식정보화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1999·2000년 2차에 걸쳐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홍보 등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총사업비 가운데 인건비가 66.26%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사업시행과정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 전공자의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사이트 구축자료의 체제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함께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체제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하

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에 관한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 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2.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백제역사·문화의 일반적인 개설내용을 중심으로 한 역사일반분야 및 민속학분야, 각종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는 고고미술분야·문헌정보통계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내용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다시 세분되고 있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역사일반분야

역사일반분야는 백제의 성장·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를 크게 백제사 개관, 백제의 제도, 백제의 경제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사 개관 부분은 백제사 개관을 포함해 백제란?/백제인의 고향/백제의 건국과정과 주민구성/백제의 건국시기/백제의 왕위계승/왕위계승도/재위기간/도성과 시대구분/인구와 사회·경제구조/영역과 전쟁/외교 등 12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백제의 제도는 정치·행정제도, 군사제도, 법률·교육제도 등 3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정치·행정제도는 관등과 관직/5부제/22부와 22담로/방군성제 등 4개, 군사제도는 군사조직/방어체제와 무기 등 2개, 법률·교육제도는 법률/교육 등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백제의 경제는 다시 토지/조세제도, 산업구조로 구분하고, 토지/조세제도는 토지제도/조세제도의 2항목, 산업구조는 농업/수공업 등 2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 2) 민속학분야

민속학분야는 크게 백제의 종교/사상, 백제의 예술, 백제의 민속, 백제의 생활,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별 항목을 보면, 백제의 종교/사상은 전통신앙의 생활/백제의 유교/백제의 도교/백제의 불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교는 다시 6개의 세부항목을 두어 설명하였다.

백제의 예술은 백제미술의 특징/조각/그림과 글씨 등 3개 분야이며, 이 가운데 조각은 백제 불교미술/백제의 불상조각 등 2개, 그림과 글씨는 그림/글씨 등 2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백제의 민속은 풍설/백제의 관혼상제/백제의 세시풍속 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백제의 관혼상제는 다시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백제의 생활은 백제의 개관과 10개의 세부항목을 두었는데, 의생활/식생활/주생활/농경생활/어로생활/수렵생활/청명/예절/백제인의 악기와 무용/백제의 의술 등이다.

백제의 설화/전설은 그대로 한 분야로 하였으며, 백제의 인물은 왕족/승려/학자/귀족/외교가/장군/예술가/기타 인물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3) 고고미술분야

고고미술분야에서는 주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 또는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자료는 유적·유물의 유형에 따라 백제의 도성, 백제의 성곽, 백제의 고분, 백제의 불교문화, 백제의 건축, 백제의 산업, 백제의 공예, 백제의 문자, 백제의 문양, 백제의 복식 등 10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성격에 따라 다시 세분되고 있는데, 백제의 도성은 한성/웅진성/사비성, 백제의 성곽은 산성/평산성/장성/평지성, 백제의 고분은 적석총/토광묘/옹관묘/석실분/전축분/화장묘/기타고분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문화는 사찰건축유적/불교공예로 구분되는데, 불교공예는 다시 석조물/불상/금속제품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백제의 건축은 궁궐건축유적/사원건축유적/일반건축유적/원지, 백제의 산업은 농기구/어로구/상업 및 무역용구/요지/제철로/전장구, 백제의 공예는 토기공예/와전공예/금속공예/기타공예, 백제의 문자는 와전/금문/비문/목서/불상, 백제의 문양은 인물문/동·식물문/산수문/기하문/복합문, 백제의 복식은 왕족의 복식/귀족의 복식/일반인복식/복식관련유물/복식문헌자료/기타유물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 4) 문헌정보 통계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는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백제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연표로 본 백제사, 백제사료집성(1차사료 1,368항목을 수록), 백제사연구도서 목록(연구보고서·논문·단행본·정기간행물·도록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관련 자료 1,984편을 수록), 백제유적 조사연표(1913년부터 1999년까지 조사된 347개) 등 4부분이며, 주로 자료에 대

한 소개이다.

### 3.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분석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내용은 크게 3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부분, 둘째는 이들 자료와 연계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버 시청각자료 및 참고자료 제공부분, 셋째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이다. 이 가운데 본 글에서는 첫째의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역사·문화분야의 개설적 자료와 고고미술분야 및 문헌정보통계분야의 체제 및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 1) 체제구성에 대한 검토

사이트의 체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수준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1) 체제분석

##### ① 목차의 체제

우선 정보제공 내용의 구성체제는 분야별로 3단계의 階序的 분류로 되어 있다. 1단계 항목을 보면, 역사일반분야, 고고미술분야, 민속학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 등 4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일반분야 및 민속학분야에서는 각각의 세부목차에 의해 개설내용을 싣고 있으며, 고고미술분야 및 문헌정보통계분야는 세부목차에 대한 개설과 함께 그 아래에 자료별 항목을 두어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② 체제구성상의 문제

가. 역사일반분야 - 백제역사정보는 백제의 전체 역

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백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제부흥운동 및 백제문화의 대외전파, 특히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제사 개관」에서 백제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백제의 성장·변천」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민속학분야 - 백제문화의 대외전파는 현재 「민속학분야(문화일반분야)」에서 「백제의 종교·사상/백제의 예술/백제의 민속/백제의 생활/백제의 설화·전설/백제문화의 대외전파」로 구성하도록 한다.

다. 고고미술분야 - 「백제의 불교문화」는 이 분야가 「고고미술분야」이므로 「백제의 불교미술」로 목차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사찰건축유적은 「백제의 건축」의 사원건축유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한 곳은 삭제되어야 하는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백제의 불교문화」의 사찰건축유적을 삭제하고, 「백제의 건축-사원건축유적」으로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목차 배열상에 있어서 「민속학분야」가 「역사일반분야」 다음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 (2) 구성 내용에 대한 검토

##### ① 역사일반분야

역사일반분야의 내용은 크게 백제사 개관, 백제의 제도, 백제의 경제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는 본 사이트의 방문자들로 하여금 백제의 전체 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민속학분야

민속학분야는 크게 백제의 종교/사상, 백제의 예술, 백제의 민속, 백제의 생활,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에서는 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이 강하며, 그 이외는 개설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주로 개설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 누락된 내용,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③ 고고미술분야

고고미술분야는 모두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개설내용을 두고 있으며,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개요·사진·도면·상세보기 등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항목의 재분류와 명확한 선정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분야는 주로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출토된 고고·미술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주로 백제사를 전공하는 학생 또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 ④ 문헌정보 통계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는 연표로 본 백제사·백제사료집성·백제사연구도서목록·백제유적 조사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백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체계성을 필요로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백제사료 부분은 원문에 오·탈자가 없어야 하며, 백제사 연구도서목록과 백제유적 조사연표에서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4. 결 론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내용의 방대함에 비해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마저도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면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내용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체제에 있어서 전체 목차와 각각의 소주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이다. 내용에 오·탈자가 많이 있으며, 용어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거나 통일성이 부족하다. 특히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설내용은 백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서술하며, 부정적인 서술은 지양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자료는 가급적 원자료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며, 고고미술분야의 경우 사진·도면을 반드시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내용 구축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공되고 있는 내용의 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 사이트의 이용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내용은 쉽고 평이하게 해야 하며,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외래어 등은 괄호 안에 병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1차적으로 전체 체제 및 내용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사이트의 내용 관리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관련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축내용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을 통해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사이트 구축목표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점점을 통해 살아있는 사이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제언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과 본 사이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이트 구축내용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방안, 둘째는 사이트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이다.

### 1) 사이트 구축내용에 대한 부분

사이트 구축내용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방안은 크게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주로 오·탈자 및 잘못된 내용의 수정, 잘못 분류된 부분의 재분류,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의 관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체제를 재구성하여 빠진 내용을 보완하고, 개설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자도서관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자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이트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제공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및 내용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②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③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제 구축

④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의 활성화를 통한 관심 제고

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보완 및 시스템운영,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⑥ 백제 역사·문화 연구동향 및 발굴성과 등에 대한 '정보란' 운영

끝으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내용의 효율적인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책임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